

J 경제지표

▼ 코스피	3,206.77	(-3.24)
▲ 코스닥	811.85	(+2.58)
▲ 금리(국고채 5년)	2.565	(+0.011)

관세·상법개정안 대응 실무교육
수원상의, 28일 수원벤처밸리II

수원상공회의소가 오는 28일 수원 벤처밸리II에서 수원시 관내 기업 임직원 및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한미 무역협상 및 상법개정안 대응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국내 상법·세법 개정 등에 따른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 선 특허,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전망, 개정안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총 2부로 구성된 교육은 ▶1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전망 ▶2부 상법 및 세법 개정안 영향과 대응책으로 진행된다.

수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실질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인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총 14개 과정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5주 연속 둔화후 이달 들어 반등
재건축 등 기대심리... 매수문의 ↑

성남 분당·하남·안산 단원 급등
고양 일산동구·평택·용인 처인구 ↓
'인구 감소·외곽지' 포천도 찬바람

경기도 내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이달 들어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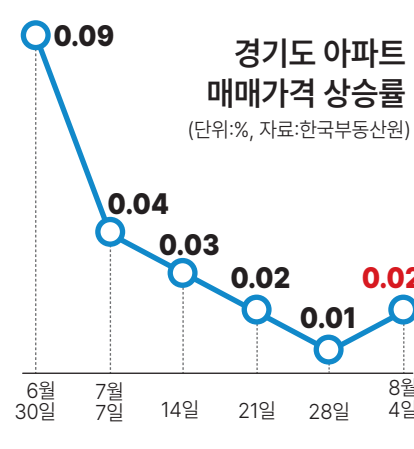
선호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매수문의도 증가, 이는 재건축 등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

들의 견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5주 연속 둔화하다 0.02%로 집계됐다. 지난 6월 30일 0.09%를 기록했던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7일 0.04%로 크게 감소, 같은 달 14일 0.03%, 21일 0.02%, 28일 0.01% 등 지속 하락했고, 이달 4일 0.02%로 5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 가운데 성남 분당구와 하남, 고양 일산동구와 평택 등이 큰 폭의 증감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분당구의 경우 지난달 28일



0.25%에서 지난 4일 0.47%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하남(0.02%에서 0.17%)과 안산 단

원구(-0.03%에서 0.08%) 등의 상승폭이 크게 늘었다.

반면, 고양 일산동구는 지난달 28일 -0.06%에서 지난 4일 -0.22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평택(-0.17%에서 -0.32%), 용인처인구(0.01%에서 -0.05%), 여주(0.02%에서 -0.05%) 등도 나란히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접근성 등으로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수원, 용인, 고양 등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도내 규제 대상이 아닌 포천(-0.01%에서 -0.03%) 등의 지역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는 인구 감소 문제

및 외곽 소재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으나, 재건축이 수 단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의 증가하고 실거래가 체결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대출규제 이후 주택시장의 상승폭이 조금씩 축소되면서 진정돼 가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6월 30일 0.05%에서 지속 감소, 지난달 28일 0.00%로 이어지다 이달 4일 0.01%로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다. 최영재기자

중기중앙회, 식품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내달 12일까지 접수... 15개사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는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을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에선 실시간 공장·설비 제어 및 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가능한 '고도화'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총

15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의 제조 현장 혁신 멘토링과 제조혁신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식품제조업계의 생산공정 자동화, 식품안전·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이 가속화되면, 급성장하고 있는 K푸드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택배 쉬는 날 확인하세요 국내 주요 택배사들이 15일 광복절 전후로 배송을 중단, 택배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업체별 일정을 미리 참고해야 한다. 중부일보DB

광복절 연휴엔 택배도 쉽니다

2~5일... 업체별 날짜·기간 상이
종사자 휴식보장·근무환경 개선
쿠팡·SSG닷컴·컬리 정상 운영

국내 주요 택배사들이 15일 광복절 전후로 배송을 중단하므로 택배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일정을 미리 참고해야 한다.

택배사들이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택배 쉬는 날'을 예년과 달리 8월 14일로 고정하지 않고 제각각 운영해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7일 배송을 도입한 CJ대한통운은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15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멈춘다. 이에 13일부터 신선·

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하를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한진도 같은 기간(14~15일) 택배 운영을 쉰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6일을 휴무로 정하고,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우체국소포의 경우 14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까지 닷새간 배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통상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휴무일이 일·월요일인 것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14일에 접수한 택배는 18일부터 배송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택배 업계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당시 8월 14일을 자율 규약

으로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이날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는 물론 충분한 휴식 보장, 심야 배송 제한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과 휴식을 지키는 일이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전반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사가 아닌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은 측배송, 컬리의 셋별배송을 비롯해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자체 배송망을 이용한 택배는 평소처럼 정상 운영된다. 신연경기자

그야말로 국민지갑... 3명 중 1명 '삼성월렛' 사용

교통카드·계좌관리에 신분증까지
2015년 160만→올해 1천866만명
이용자 11배 ↑... 누적 결제 430조
삼성전자, 31일까지 캐시백 행사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삼성전자의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모바일 결제 기능을 넘어 ▶교통카드 ▶계좌 관리 및 이체 ▶모바일 쿠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5년 8월 첫선을 보인 '삼성월렛'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행정적 효력을 가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 확인 기능을 지원하며, 자동차 키(UWB, NFC 지원) 기능을 통한 편리함도 더했다.

특히, 국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최초로 지난 2021년 6월 경기지역화폐 등록



삼성전자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이 10주년을 맞아 캐시백·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사진=삼성전자

지원을 시작, 실물 지역화폐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했다.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싱가포르 등 전 세계 61개국에서 현지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모바일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가입자 수의 경우 2015년 160만 명에서 2025년 현재 1천866만 명으로 10년

간 약 11배가 증가했으며, 연간 결제 금액은 2016년 3조6천억 원에서 2024년 88조6천억 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총 누적 결제금액은 약 430조 원에 달한다.

채원철 삼성전자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 부사장은 "삼성월렛은 10년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을 혁신하며, 모바일 월렛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지갑 이상의 편의성과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삼성월렛 10주년을 기념해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결제에 대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삼성월렛 결제 시 경품 당첨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다음 달 10일까지는 삼성월렛 10주년 기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퀴즈 맞추기 이벤트 등을 통해 순금으로 제작된 신용카드 크기의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연경기자

